

영어 정지음-비음 연쇄체의 발음 오류분석과 지도방안연구

박진희, 박한상
홍익대학교 영어교육과

A Study of the Analyses of Pronunciation Errors and Teaching Method of Stop-Nasal Sequences in English

Jinhee Park, Hansang Park
English Education, Hongik University
E-mail : jinny820@hanmail.net, phans@hongik.ac.kr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Korean students' pronunciation errors in stop-nasal sequences in English. For the study, 23 English words of stop-nasal sequences were pronounced by 4 natives and 21 Korean students. The results showed two kinds of pronunciation errors: the insertion of a vowel and the nasal assimilation between stops and nasals.

A teaching material was designed based on the errors. After a 60-minute class with the material they were asked to pronounce the same words in another session. There was a substantial improvement in the error correction.

I. 서론

정지음-비음 연쇄체는 한국인들이 오류를 자주 범하는 음성 연쇄체이다. 본 연구는 한국인 학생들의 발음에 나타나는 영어 정지음-비음 연쇄체의 발음 오류를 분석하고 이것에 근거한 교안에 따라 실시한 교육의 효과를 연구한다.

녹음을 위하여 선별한 23개의 정지음-비음 연쇄체의 실험 단어를 표 1에 제시하였다. 실험 단어는 제 1음절에 강세가 오는 2음절어이다.

표 1. 정지음-비음 연쇄체

	정지음	비음	단 어
어중	순음	m	chapman, cabman,
		n	drabness, steepness
	치조음	m	cadmium, Batman
		n	fatness, sadness, madness
	연구개음	m	segment, blackman, gagman, acme
		n	picnic, blackness, magnet, Agnes
어말	순음	n	gibbon, happen
	치조음	n	sudden, button
	연구개음	n	blacken, wagon

II. 본론

2.1 1차 녹음

홍익대학교 영어 강사 중 미국 동부 출신 남, 여 각각 2명을 선별하여 총 23개의 단어를 "Say ____".라는 틀 문장에 넣어 보통 속도로 분명하게 발음하도록 요청하였다. 마이크는 입으로부터 5cm 거리, 얼굴은 정면에서 45도를 유지하여 녹음하게 하였다. 표본추출률 44,100 Hz였으며 양자화 비트는 16 bit였다. 녹음된 문장의 총수는 92 문장(23개 문장x4명)이었다.

동일한 방법으로 서울 양서중학교 3학년 9반 학생 21명의 발음을 양서중학교 방송실에서 녹음하였다. 우선 설문 조사를 통해 치아교정자를 녹음에서 제외시켰고 발음상의 장애 및 언어병리학적인 병력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학생들 모두 외국 체류경험이 없었다. 23개 단

어의 발음 기호와 뜻이 적힌 유인물 나눠주고 1음절 강세의 단어임을 설명하였다. 연구자에 의한 간섭 현상을 최소화해서 학생들의 발음 상태를 있는 그대로 녹음하기 위해 23개 단어의 발음을 들려주지 않았다. 단, 그 밖의 다른 단어를 예로 들어 각각의 발음 기호를 읽는 방법을 설명하였다. 화자들이 지켜야 할 사항과 문장 틀은 원어민의 녹음 방법과 동일하였다. 단 실험 단어를 잘못 읽은 경우 “다시”라고 말하고 그 문장을 다시 읽게 하였다.

2.2 발음 오류 분석

녹음한 원어민의 총 92개의 문장(23개 문장x4명) 및 학생들의 총 483개(23개 문장x21명) 문장을 대상으로 스펙트로그램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중 정지음-비음 연쇄체 사이에 모음 [ə]를 삽입하여 발음할 수 있는 6개 단어(gibbon, sudden, wagon, happen, button, blacken)는 오류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원어민의 스펙트로그램과 대조하여 오류 유형 및 빈도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표로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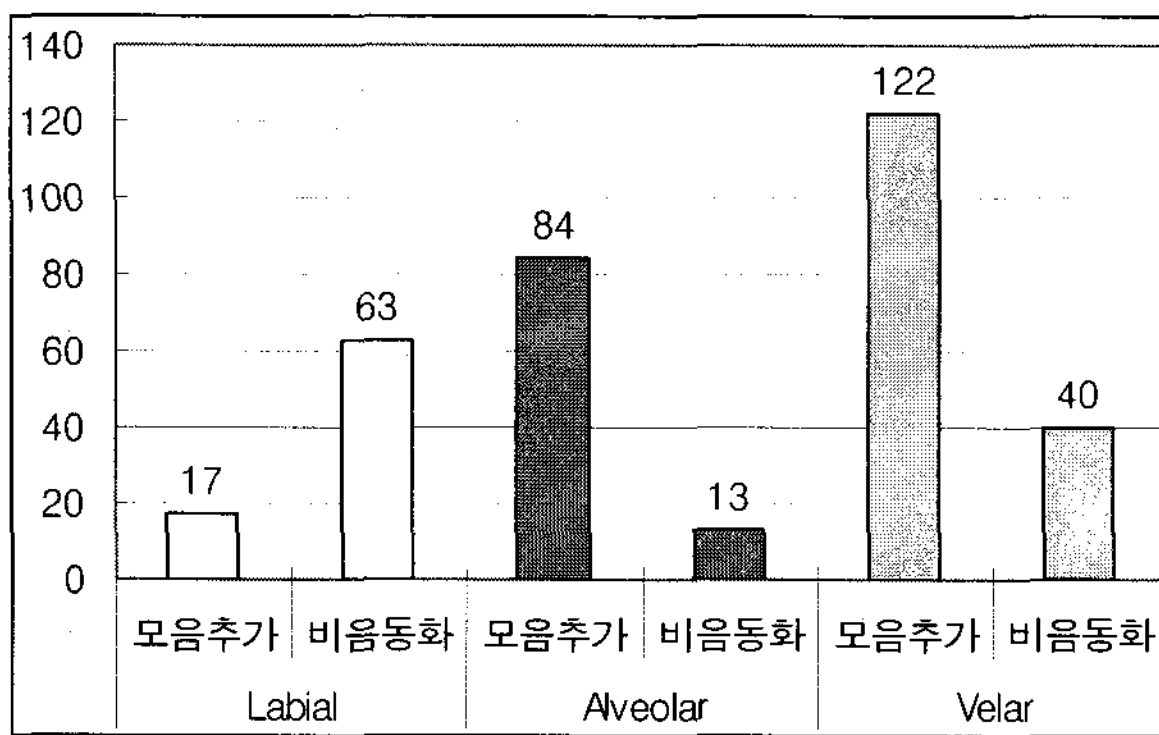


그림 1. 1차 실험의 발음 오류 분석

가로축은 정지음의 조음 위치별로 각각 2종의 오류, 즉 모음 삽입과 비음 동화의 오류를 나타낸다. 세로축은 오류 빈도를 나타낸다.

순음(labial)-비음 연쇄체의 경우 총 84개(4개 문장 x21명)의 단어 중 총 80개(95%)의 단어에서 발음 오류가 발견되었는데 비음 동화의 오류가 우세했다. 치조음(alveolar)-비음 연쇄체의 경우 총 105개(5개 문장 x21명)의 단어 중 총 97개(92%)에서 발음 오류가 발견되었는데 모음 삽입의 오류가 우세했다. 마지막으로 연구개음(velar)-비음 연쇄체의 경우 총 168개(8개 문장 x21명)의 단어 중 총 162개(96%)에서 발음 오류가 발견되었는데 모음 삽입의 오류가 우세하였다.

2.3 교안

학생들의 발음 오류 개선을 위하여 오류 분석에 바탕을 두고 영어의 정지음-비음 연쇄체를 한국어의 발

음 현상과 연관시켜 교안을 작성하였다.

학생들에게 모음이 삽입된 발음 및 비음 동화가 일어난 발음과 정확한 발음을 들려주고 둘 간의 차이점을 인식시킨다. 이 두 가지의 발음 오류는 한국어의 음절구조에 따른 한국식 발음이다.[1]

‘chapman’[ʃæpmən]과 같은 비음 동화의 오류의 경우 정지음 /p/와 비음 /m/ 사이를 끊어서 따로따로 발음하도록 지도한다. 또한 한국어의 ‘앞문’[암문]의 예를 제시하여 영어에는 적용되지 않는 음운현상임을 인식시킨다.[2],[3]

‘fatness’[fætnɪs]와 같이 모음을 삽입하는 오류의 경우 혀를 [n]이 끝날 때까지 이뿌리에서 떼지 않고 공기를 코로 내보냄으로써 [ə] 발음을 넣지 않도록 지도한다. [2],[4]

치조음-비음 연쇄체인 ‘button’과 ‘sudden’의 경우 모음 [ə]를 넣지 않은 성절성 자음으로도 발음이 된다는 사실을 설명한다. 발음 방법은 모음 삽입의 오류를 없애는 방법과 동일하다. [5],[6]

마지막으로 전체 단어에 대한 발음 연습을 해 보고 다시 한 번 올바른 발음 방법을 정리하여 강조하도록 교안을 작성하였다.

III. 2차 및 3차 실험

3.1 2차 및 3차 녹음

교안에 따라 발음 교육을 실시한 후, 1차 실험과 동일한 방법으로 학생들의 발음을 녹음하였다. 녹음시 ‘button’과 ‘sudden’의 경우 정지음-비음 사이에 [ə]를 넣지 않은 성절성 자음의 발음으로 요청하였다. 이를 2차 실험으로 정의한다. 이것은 교실에서 이루어진 발음지도의 효과만이 반영된 것이다.

녹음 도중 학생들이 잘못 발음할 경우 즉석에서 연구자가 올바른 발음을 직접 발음하여 들려준 후 그 문장부터 다시 발음하여 녹음을 이어가도록 하였다. 발음이 교정되지 않을 경우 최대 3차례까지 즉석에서 연구자의 발음을 들려준 후 다시 발음하도록 요청하여 녹음하였는데 이를 3차 실험이라 정의한다. 3차 실험은 학생들이 무의식중에 기존의 발음 습관대로 발음 오류를 범하더라도 올바른 발음을 들었을 경우 스스로 오류를 인식하고 교정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다.

3.2 발음 오류 분석

1차 실험 분석과 동일하게 정지음-비음 연쇄체 사이에 모음 [ə]를 삽입하여 발음할 수 있는 6개의 단어는 오류 분석에서 제외하여 총 357개(17개 문장x21명) 단어의 스펙트로그램을 대상으로 오류 여부를 판별하

였으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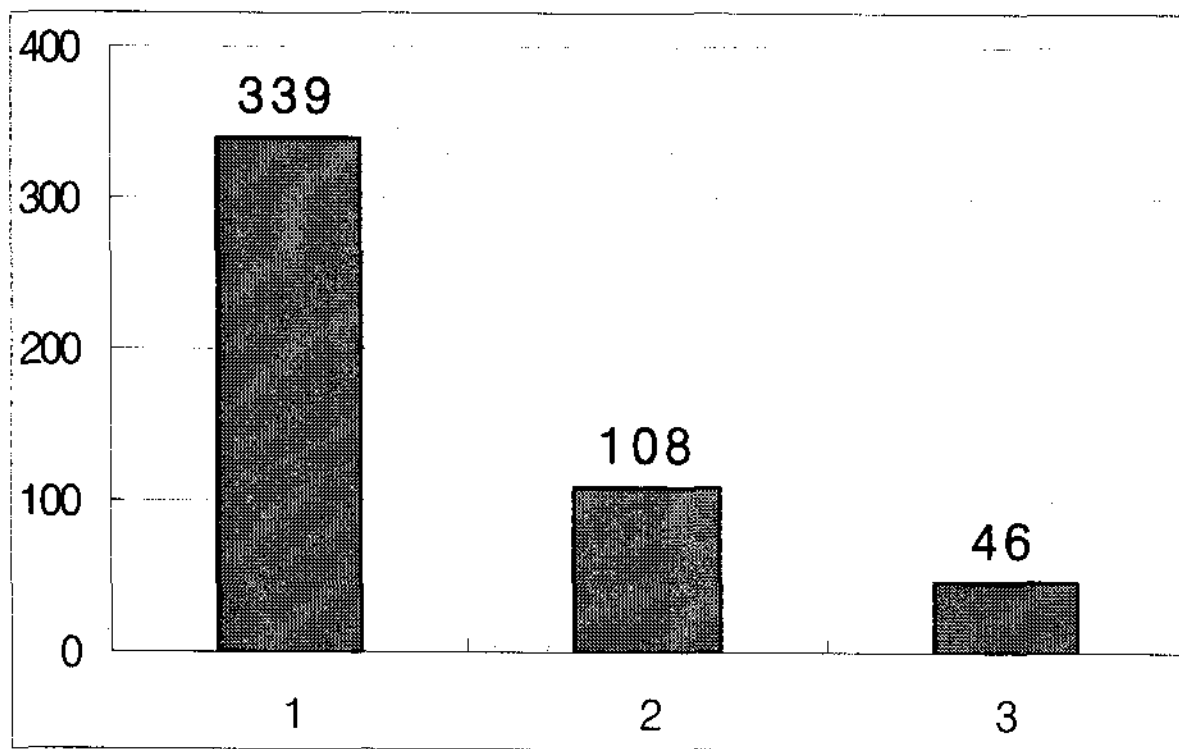


그림 2. 실험 차수에 따른 오류변화 추이

가로축은 1-3차의 실험 차수를 나타내며 세로축은 총 357개 문장(17개 문장x21명) 중 발생된 발음 오류의 빈도를 나타낸다. 교육 전인 1차 실험 시 95%에 달했던 발음 오류가 교육 후 최종 3차 실험에서는 13%로 현저히 감소되었다. 또한 2차 실험 시 30%였던 발음 오류율이 3차 실험 결과 13%로 감소한 것은 지속적인 교육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정지음의 조음 위치별 오류의 개선 추이를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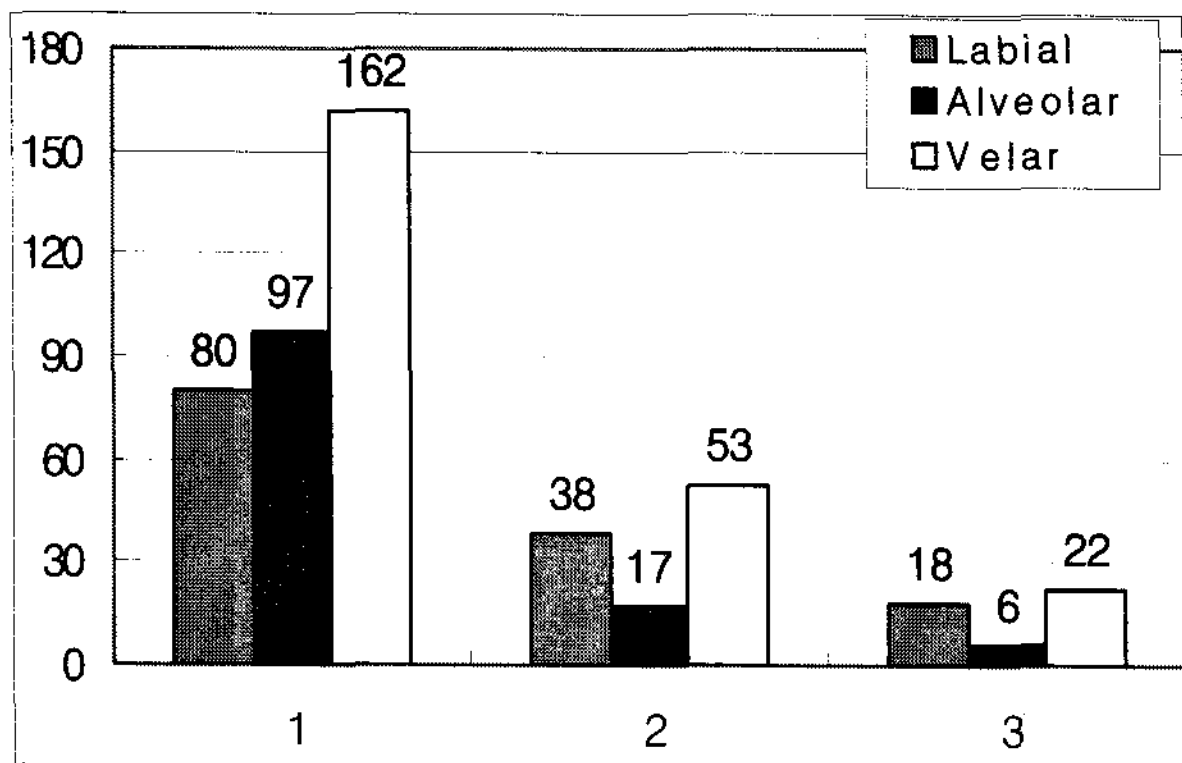


그림 3. 정지음의 조음 위치별 오류 개선 추이

가로축은 1-3차에 이르는 실험 차수를 나타내며, 세로축은 총 357개 문장(17개 문장x21명) 중 발음 오류의 빈도를 나타낸다. 교육 전인 1차 실험에서 교육 후 최종 3차 실험으로 진행됨에 따라 순음(labial)-비음, 치조음(alveolar)-비음 및 연구개음(velar)-비음 연쇄체의 유형별 오류가 모두 현저히 감소했다. 연구개음-비음 연쇄체 및 순음-비음 연쇄체에 비해 치조음-비음 연쇄체의 오류 개선율이 높았다.

마지막으로 실험 차수에 따른 성절성 자음의 발음 빈도를 분석하였다.

가로축은 1-3차에 이르는 실험 차수를 나타내며, 세로축은 'button'과 'sudden'에 대한 총 42개의 실험 문장(2개 문장x21명) 중 성절성 자음을 발음한 빈도를 나타낸다. 1차 실험에서는 단 1명의 학생만이 'butt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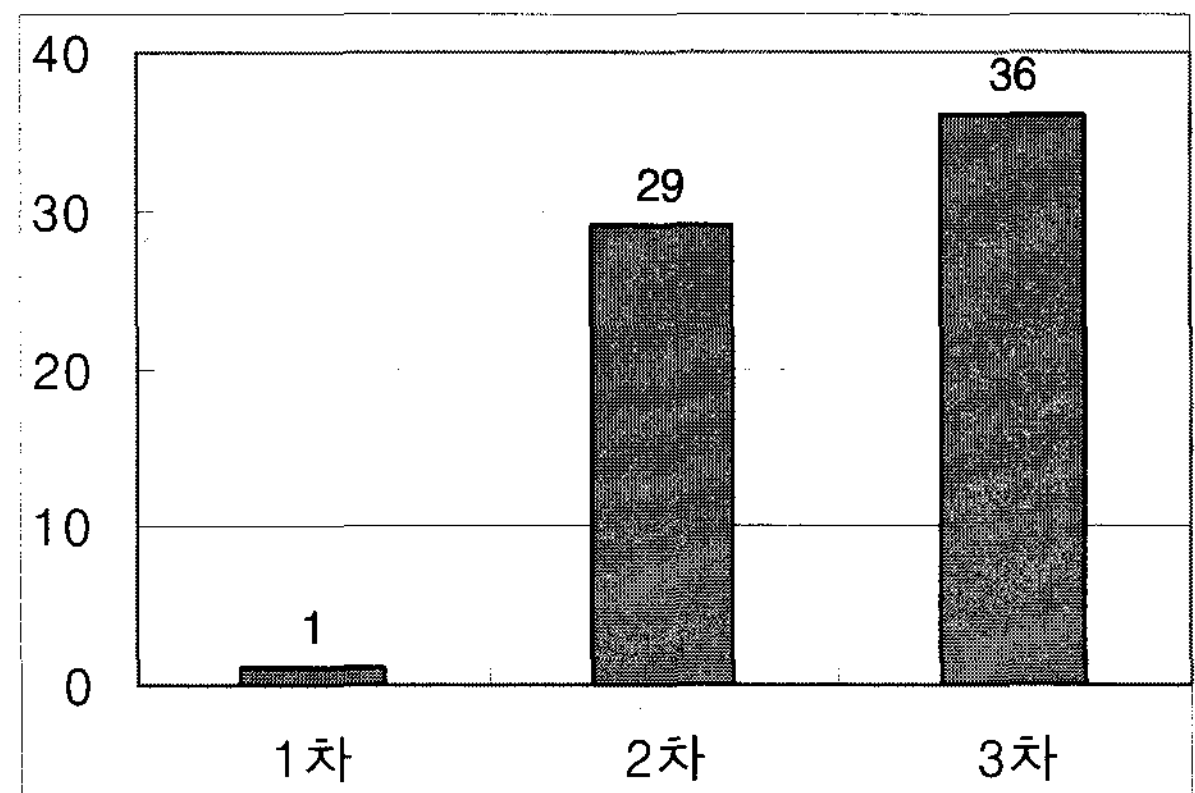


그림 4. 성절성 자음의 발음 빈도

을 [batn]으로 발음하였으나, 교육 후에는 성절성 자음인 [batn]과 [sɒdn]으로 발음할 수 있는 학생이 현저히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IV. 결론

본 논문은 한국인의 정지음-비음 연쇄체의 오류를 분석하여 효과적인 발음방법을 제시하였다. 발음 오류 분석 결과 2종의 오류, 즉 모음 삽입과 비음 동화를 발견하였다. 이를 토대로 작성한 교안에 따라 교육을 실시한 결과, 발음 오류가 현저히 개선됨을 확인하였다. 특히 연구개음-비음 연쇄체 및 순음-비음 연쇄체에 비해 치조음-비음 연쇄체의 오류 개선율이 높았다. 본 연구는 학생들의 발음 오류를 분석한 후 이를 토대로 작성한 교안에 따라 실시한 교육의 효과성을 확인한 것에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 [1] 김진성, "영어지도를 위한 자음의 대조분석 연구 : 한국어, 영어의 자음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8
- [2] 황원섭, "대조분석을 통한 영어 오류음 발음지도 연구 : 영어자음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 [3] 윤양화, "영어외래어 발음 분석과 발음지도에 대한 연구",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4] 이승희, "영어자음군의 발음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 [5] 이정화, "영어자음의 발음 오류에 관한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1
- [6] Peter Ladefoged, *A Course In Phonetics 4th edition*. Heinle & Heinle, 2001